나는 지정

2011 하반기

■목차

Ⅰ. 학장님의 여는 말씀
Ⅱ. 11학번 학우들의 한마디
Ⅲ. 지정인과의 소통
Ⅳ. 취업하는 지정인
Ⅴ. 2011년 지정의 모습
Ⅵ. All about 도서관
Ⅶ. 요건 몰랐지
Ⅷ. 2011년도 하반기 세계는
Ⅸ. 편집후기

2011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그림비' 란 순우리말로 젊은이, 청년을 뜻 합니다.

목차

Ⅰ. 학장님의 여는 말씀

Ⅱ. 11학번 학우들의 한마디

Ⅲ. 지정인과의 소통

1. 지정의 든든한 버팀목, 서은경 학부장님을 만나다
2.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3.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아시나요?

Ⅳ. 취업하는 지정인

1. 대학도서관 사서, 이종윤 선배님과의 만남
2. 학교도서관 사서, 이옥주 선배님과의 만남

Ⅴ. 2011년 지정의 모습

Ⅵ. All about 도서관

지식과 정보가 자유로운 세상, 국회도서관

Ⅶ. 요건 몰랐지

한성대 주변의 명소를 찾아라!

Ⅷ. 2011년도 하반기 세계는

1. 리비아 사태 2편, 리비아의 오늘과 내일
2. 반값등록금논란의 시작과 앞으로의 노력
3. 개인정보유출, 그 실태와 해결방법은?

Ⅸ. 편집후기

Ⅰ. 학장님의 여는 말씀

"도서관과 사서의 이미지."

지난 1학기 1학년들에게 "문헌정보학의 이해"를 강의하고 그들에게 더글러스 스콧의 "쉿, 조용히: 풋내기 사서의 좌충우돌 도서관일기"를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주었다. 그들이 제출한 리포트를 읽으며 문헌정보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표현한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메모해가면서 3분의 2 이상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고 직접적으로 접해 보지 않으면서도 이런 부정적 이미지로 연상된다는 것이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전공자로서 또한 교육자로서 뭔가 잘못 되지 않았는지 반성해보게 되었다.

첫째,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도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의 대학 1학년생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접했던 학교도서관의 환경이나 분위기 등을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하다. 요즘의 학교도서관의 분위기는 그 시절보다는 한결 밝아졌으며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전공한 사서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견해는 상급학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서도 비슷한 결과일거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사서들의 이미지에 대한 것은 소설이나 영화를 만들어도 될 듯싶다. 대부분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고지식하고, 사무적이고, 유머감각 없고, 인간미 없고, 깐깐하고, 딱딱하고, 말 걸기 무섭고, 잘난 척하고, 불친절하고, 새침하고, 차갑고 무뚝뚝하고, 사회성이 없어 보이고, 잔소리 많고, 조용히 하라고 지적하는 사람, 노처녀, 날카로운 인상에 안경을 치켜세우며 "거기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는 이미지, 조용히 하라고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늙은 여자 사서의 이미지, 누가 뭘 물어보면 가까스로 대답만 하는 안경잡이 책벌레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한편, 긍정적인 이미지로는 엄숙하고 조용하며 책을 좋아하는 사람, 도서관 지킴이, 여유롭고 우아하게 책을 읽는 사람, 친절하고 조용하며 공부를 하는 이미지, 책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지적인 이미지 정도이다. 과연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우리들은 이용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이미지에 만족하는가? 바꾸고 싶은 의지는 정녕 없는가? 반성해보야 할 일이다.

또한 진정한 사서는 "이용자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제시하였다. 1학년들임에도 정답을 아는 모양이다. 진정 우리 스스로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이용자들이 지식정보를 찾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훌륭한 협력자 또는 동반자라고 언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서가 되는 길은 없는 걸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 사서로서 일할 때 진정한 사서의 모습으로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인문대학 학장, 지식정보학부 교수
조인숙

Ⅱ. 11학번 학우들의 한마디

학번	이름	2학기 소감
1114002	곽병준	나도 이제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1114003	곽호준	벌써 한학기의 반이 지나갔는데 모두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1114004	권혜진	그림비! 벌써 두 번째! 완전 축하축하 ㅋㅋ 우리 11학번 앞으로도 정답게 지내요^^! 굿바이 2011
1114005	김가경	아주 재밌었습니다. 공부보단 노는게 더 많았던 1학년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열심히 학교 쫌 가야징^^
1114006	김동욱	즐거운 1년이었습니다.
1114007	김성아	1학기 때보다 학교생활에 적응도 되고 힘들지만 친구들하고 더 친해진 것 같아서 2학기도 보람있었다.
1114010	남궁은	스무 살이 끝나가서 너무 아쉬워요
1114011	남지은	학기를 마무리 하면서 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1114013	박대현	이제점점 시험기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져가는 느낌이 든다. 벼락치기근성을 얼른 버려야겠다.
1114015	박정민	일 년이 한거없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쉽네요 ㅜㅜ 내년에는 좀 바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1114017	손동렬	벌써 1학년이 끝나간다는게 신기합니다. 얼마 안남은 기간 동안 다 같이 더 재밌게 보냈으면 합니다.
1114018	송민규	처음 학교 건물들을 소개받으며 입학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일년동안 지식정보학부와 희노애락과 많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잇어 기뻤습니다.
1114020	신광우	아 나한테도 이제 후배가 생기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14021	신나리	벌써 학기 말인게 놀라워요..2학기는 과제들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요
1114022	안미현	그림비 편집을 하면서 책임감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음 그림비는 좀 더 발전 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림비와 학생회를 통해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내년이 기대된다.
1114024	양예지	일년이 벌써 지나갔네요 이학년 때부터는 학점관리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1114026	우형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 그걸로도 충분히 괜찮은 일년이였습니다.
1114027	유택진	1학년이 끝나면 어른이 될 것 같았는데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거같다
1114028	이다훈	입학한 뒤 정신없이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1년이었습니다.
1114029	이덕훈	일년이 빨리 지나갔어요
1114030	이미영	엊그제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일 년이 지났네요! 내년에도 신나게 열심히 삽시다.
1114031	이민영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쉽고 재밌는 일년이었다.
1114032	이유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좋아요^^
1114034	임태현	성적과는 관련이 없다는게 아쉽지만 출석은 성실히 한 것같아 만족스럽다.
1114035	임호영	벌써 2학기가 끝나가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ㅎㅎ 어쩜 이리 시간이 빠른지 입학한 게 어제만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ㅎㅎ 빨리 가는 시간만큼 저도 많이 성장했어야 할 텐데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아무쪼록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다보면 차츰차츰 성장해가겠죠?? ㅎㅎ 이제 내년이면 벌써 2학년이네요 2학년 때도 열심히 생활할게요!!
1114036	정다혜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데 아직 몇 주 남은 시간 동안 알찬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1114037	정재우	학교수업이 많이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
1114038	정주용	학우 분들의 성원으로 과의 공식 일꾼에 당선 된 것이 기분이 좋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함소리 화이팅!!
1114039	정호빈	다들 일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편집부 다들 화이팅!
1114042	조재인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어서 지루했다.
1114043	지영현	일년 동안 시험, 과제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많은 행사와 회식,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서 바쁘고 즐거웠던 보람찬 일년을 보낸 것 같다.
1114044	채혜린	1학기 때보다 2학기가 되니까 전공에 대해서 더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1114045	최근창	음 일학년 동안 수업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남은 기말 준비 열심히 해서 마무리 잘 하고 싶네요ㅋㅋ

1114046	최상준	1학기 때 학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않아 2학기 때는 달라지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군대 다녀오면 제대로 해야겠다.
1114047	최수현	즐거웠거 서지학에 대해 알게되어 좋았습니다
1114048	한효정	입학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2학기가 끝나가네요 내년에도 늘 즐겁고 좋은 일만 있길!
1114050	강필준	내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었던 곳
1114051	권사빈	신입생이 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1학년이 끝나다니 많이 아쉽다.
1114052	김다혜	1학기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ㅠ.ㅠ 하...
1114053	김보미	1학기보다 2학기가 나름 더 좋았다. 2학년 땐 장학금 타야징~
1114054	김솔아	1학기 때보다는 수업이나 학교 지리가 익숙해졌다. 2학기가 지나면 2학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1114055	김영신	한학기가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다음 학기 부터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1114056	김유진	참 재밌었다 ㅋㅋㅋ
1114058	김정환	2학기때도 많이 못한게 많아서 아쉬웠고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야겠다.
1114059	김지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1학년이 그냥 지나버린 것 같아서 아쉽다.ㅠ 2학년때는 좀 많은걸 해야지!!
1114060	문성훈	아쉬움이 많이 남는 2학기였습니다.
1114061	박소현	학교 들어온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벌써 이학년 ㅠ_ㅠ 열심히 살아야지 홧팅!
1114063	박준수	2학기를 마치며 1학기와는 다르게 적응도 되고 어려운 점들은 없어져 가지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보람찬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114064	배산들	벌써 1학년생활이 다 끝나간다니...너무 아쉬워요 ㅜㅜ 기말고사 잘봐서 1학년생활 잘 마무리 해야겠어요.
1114065	서향록	공부도 좀 하면서 놀 껄 그랬나보당ㅜㅜ 넘 놀기만 했구나...;ㅜㅜ 담학기는 열심히!!
1114066	송용은	2학기는 무척이나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ㅜㅜ 이제 어느덧 이학년이 코앞이라니ㅜㅜ 슬프니만 기뻐요ㅋㅋ
1114067	신재열	1년이 너무 빨리 지나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1114068	안재학	학교 오는 것이 귀찮지만 막상 오면 즐거운 이유, 지정
1114069	안지은	적응이 돼서 그런지 1학기에 비해 편하고 익숙한 학교생활이었습니다. 남은 학기 잘보내고 내년엔 더욱 알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1114070	안혜선	2학기 때는 1학기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뿌듯해요! 2학년 때도 파이팅!!! ㅎㅎ
1114072	윤희수	새터가고 오티하던게 얼마전인거 같은데 어느새 정신 차리니 2학기가 끝나간다. 뭔가 시간이 굉장히 빠르단 생각이 든다.
1114075	이영주	벌써2학기도 다 끝나간다니 시간이 참 빨리 가는것 같다. 2학년때는 모든지 더 열심히 해야겠다.
1114076	이은호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과제보다 신경쓰이는 기사를 쓰느라 짜증도 났지만 보람있었다!
1114077	임진섭	11학번 남자들이여 모두 떠나자.
1114078	장병근	2학기에는 다사다난했던거 같지만 친구들이랑 더 친해져서 좋았던거 같아요.
1114080	조윤혜	일학기 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아쉬운 느낌도 드는데 이학년은 더 알차게 보내고 싶어요^^
1114081	진소리	일학기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1114083	최주희	대학교 첫 해여서 그런지 엉망진창이지만 그래도 무난히 지나간 것 같다. 내년에는 좀 더 계획있는 생활을 해야겠다.
1114084	허수진	일학기와 마찬가지로 피곤한 이학기였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ㅜㅜ
1114085	홍선민	스무살 때 해볼수 있는걸 더 경험해 보구 싶었는데 너무 빨리가서 아쉬워용
1114086	홍수민	입학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ㅠㅠ 내년에는 더 알차게 보내야겠다~

지정의 든든한 버팀목, 서은경 학부장님을 만나다.

11 박대현 11 안미현

Q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학력은 다 알겠지만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에서 학부와 석사 마치고 결혼 한 후 1984년에 남편과 함께 미국 일리노이주로 갔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문헌정보학 박사과정(GSLIS)은 사서경력 5년이 있어야지만 입학이 가능해서, CAS(Certificated for Advanceed Study)라는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하면서 일리노이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사서로 일을 하였고 1989년에 박사과정에 들어가, 1993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한성대학교 부임했습니다. 어느새 부임한지 19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큰아들을 낳았고 한성대 부임해서 둘째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Q : 학부장이라는 직책이 타 교수와 다른 점이 있나요?

A : 간단히 말하자면 학과를 대표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장이란 서비스 꾼이라고 할까요? 예산 계획부터 시작해서 학사 일정 관리와 장학금 관련 업무, 학부 대표로 회의 나가는 것, 그리고 과목 개설에도 관여해서 일을 하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수님들과 협심하여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는 직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힘들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라고 생각해요.

Q : 학과가 지식정보학부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갖게 되는 다른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 지식정보학부는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을 함께 어우르는 표현으로 이전 문헌정보학과보다는 기록관리학 관련 교과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사서 그리고 기록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정보라는 것이 학문적인 의미보다는 개념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하는 학과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서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시대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어요. 다른 대학에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편 이 이름을 퍼뜨려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지식정보학부라는 이름입니다.

Q : 인문대에서 지식정보학부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 다른 학과에 비해 좀 더 학문이 실용적이라는 점, 실습에 따른 기술적인 업무에 대한 방식을 배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적 기술을 배웠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식정보학부의 특징입니다. 단점으로, 인문학에서는 자신의 표현력, 상상력 등을 다루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식정보학부에서는 실질적인 경영,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 등을 다루니 그런 부분에서는 응용 대상이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실질적인 기술과 응용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Q : 하시는 전공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저의 전공은 크게 보면 정보학이에요. 석사 때부터 컴퓨터에 의하여 정보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현상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석사논문에는 용어를 자동으로 분류하여 관련어를 추출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썼고 박사학위 논문은 구문분석을 통하여 색인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썼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은 현재 검색엔진에 사용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이용자가 어떻게 하면 정보를 쉽게 찾거나 브라우징하게 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용자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논문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관련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Q : 전공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 사실 대학 입학 전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전공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까이 있는 사촌언니가 도서관학을 전공했고 인문계열 쪽에서는 취업이 잘 되더라는 말을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을 했어요. 막상 대학 입학 후,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다보니 도서관 일도 재밌었고 특히 저의 대학시절이 도서관 환경에 컴퓨터가 접목되는 시기여서 정보학이 새로웠고, 정보학을 하면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지금 보니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보기술, 방법 등을 쫓아가야 하는 정보학이라는 학문이 그다지 멋져 보이지는 않네요. 내가 늙어가서 그런가요?

Q : 복수전공이나 교직에 대해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으신 점

A : 복수전공은 아마 자기 전공 외에 하고자 하는 게 있다거나 견문을 넓히고 싶은 학생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추세가 깊게 공부하는 것에 더해 넓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복수전공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학문을 동시에 연마한다는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즉 두 개의 학과에서 수업을 듣기는 했지만 체계적으로 듣지도 못하고 또 깊이 있게 듣지도 못하여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남들이 복수전공 한다고 무작정 따라가는 식이 되기보다는 이 학문이 자신이 하고 싶은 학문 또는 목표에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직 부분은 일단 현재 일반 학과 T.O가 학과생의 10%까지이기 때문에, 학부생이 45명인 우리 학부에서는 5명이 교직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8명 ~ 10명 정도 신청하는데, 교수님들이 면접(50%)과 성적(50%)을 근거로 하여 5명을 선정합니다. 교직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성적도 좋아야 하지만 '왜 자신이 교직을 해야 하는가' 라는 자의식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직이 잘되니까, 학교선생이 좋으니까 하는 단순한 이유로 지원하기 보다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으로서의 의무, 책임감 같은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Q : 지식정보학과를 재학 중인 혹은 졸업한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또는 조언

A : 대학은 취업을 시켜주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취업이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학이 꼭 취업만을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학문을 배우고, 또 학문을 탐구하는 것을 익히고, 같이 탐구하는 학생들과의 우정을 쌓고, 서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 또 추억도 쌓아가고요. 이러한 부분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는 "똑똑한 사람"을 좋아 하지만, 그 보다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아는 것만을 풀어서 보이는 사람"보다는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요. 폭 넓은 넉넉한 지정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Q : 여름방학동안 특별히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A : 이번 여름방학 때 특별히 한 일은 없어요. 연구년(2009-2010)동안에는 외국학회를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볼 것도 많이 보았는데 이번 년도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네요. 수업준비하고 논문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둘째 아들이 입시생인데, 방학 때 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 같아 아무런 계획을 안 잡았는데 밥도 별로 많이 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Q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 올해는 바빠서 못했는데 내년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ISchool Conference in Asia'라는 프로젝트입니다. ISchool Conference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정보학 분야의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나 대학원생들이 함께 모여 관련 연구를 발표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학술대회입니다. 이러한 학술대회를 아시아에서도 개최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교수 및 대학원생도 서로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죠. 현재 일본,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에 있는 학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활동에 한국의 대학들도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고 싶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한국 교수로는 저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논문들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개론서를 집필하는 것도 저의 계획인데 언제 "임무완수"할 지..... 노력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11 남궁은 11 안혜선 11 이은호

<제 28대 지식정보학부 나는 지정 학생회>

Q : 그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인가요?

학생회장 06 최다환 : 저희는 매 행사 하나하나가 새롭게 배우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힘든 점들도 다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점을 뽑자면 새내기 새로 배움터입니다. 가장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부학생회장 10 여인기, 10 전미소 : 저희는 새터를 가기 전에 신입생 분들한테 전화를 걸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그 때의 설렘이 아직도 잊혀 지지 않아요. 새내기였던 저희가 선배가 된다고 생각하니 당황스럽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받아온 선배님들의 애정을 나눠줄 수 있다는 마음에 설레였답니다. 아직도 후배님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설렘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학생회장 06 최다환 : 다음으로 기억이 나는 것은 학생회비에 관련한 것입니다. 이게 돈에 관련된 것이라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 동안 학생회비를 완납한 학번은 11학번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무시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이렇게 학과를 위해서 생각해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남는 건 연합 엠티겠죠? 새터의 축소판, 연합 엠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장소섭외부터 하나하나 알아서 했는데 저희가 무엇보다 고맙게 생각하는 건 많은 학우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통 80명 정도가 엠티를 가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한 달 전에 답사를 가서 방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합 엠티에는 130명이라는 많은 학우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도 좁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학생회장 10 여인기, 10 전미소 : 네, 이런 점들은 29대 학생회분들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연합 엠티 때 저희가 어린데도 진행을 잘 따라주신 선배님들, 후배님들 감사합니다.

Q : 다음 학생회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회장 06 최다환 : 대학이라는 것이 사회의 축소판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학생회를 하면서 많은 인맥도 쌓으며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는 이제 졸업을 하지만 다음 학생회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기대가 되고 내년에는 우리 28대 학생회보다 더욱 더 발전하는 29대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되살려서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쪽으로 했는데 다음 학생회장님은 더 많은 일들을 기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학생회 활동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로 내년 학생들에게 지식정보학부를 잘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학생회장 10 여인기, 10 전미소 : 저희는 부 학생회장 이다보니 부 학생회장님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회, 특히 회장단은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갈등을 빚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조금씩 물러서주시고 양보하면서 배려하는 화목한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음 학생회에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

<제 29대 지식정보학부 "고함소리" 학생회>

Q : 그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인가요?

학생회장 06 이시연 : 저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도 좋았고, 축제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축제기간 3일 내내 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일하면서 고생했던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2학년 연말에 지정인의 밤을 했는데 그때 동기들, 선배님들과 함께 밴드공연을 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했던 것이었는데 돌이켜 보니 남들은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 것이어서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부학생회장 11 김다혜 : 저는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축제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새내기 때만 할 수 있는 새내기 주점은 다시 해 볼 수 없는 것이라서 제일 기억에 남아요.

부학생회장 11 정주용 : 저 역시 학교를 다니면서 한번 밖에 할 수 없는 새내기주점도 인상 깊었지만 O.T.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를 늦게 붙고 O.T.를 가서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아무 문제없이 사람들과 사귀고 첫 단추를 잘 낀 것 같아서 좋았어요.

Q : 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회장 06 이시연 : 원래는 인문대 회장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쪽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제가 입학하고 선배들이나 학생회 덕분에 선후배관계도 더 좋아지고 좋은 추억을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앞으로 후배들한테 똑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부학생회장 11 김다혜 : 이것도 2학년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없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번 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학생회장 11 정주용 : 대학생활을 하면서 4년 동안 물 흘러가듯이 그냥 조용하게만 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활동을 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저희 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Q : 2012년에는 어떤 활동들을 할 계획이신가요?

학생회장 06 이시연 : 저는 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기존에 있던 것은 있던 대로 지키고 대학생일 때 할 수 있는, 학생회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과실의 시설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과실을 바꾸는 일만 하더라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학생회비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좀 상당히 많이 벌이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이나 졸업하신 과 동문들을 많이 찾아뵙고 그 분들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식으로 과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부학생회장 11 김다혜 : 저도 일단 과실을 먼저 바꾸고 싶어요. 과실에 있는 더러운 것도 치우고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들 과 행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선수범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에요.

부학생회장 11 정주용 : 저는 학우 분들이나 선후배간에 조금이나마 더 친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지고 저희 과가 좀 더 밀집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아시나요?

11 박준수 11 안혜선 11 정호빈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2000년대 초에 시작해 최근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총 8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단기과정(3~4주) 프로그램이 3개, 장기과정(1~2학기) 프로그램이 5개이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수는 학생들의 참여도나 흥미정도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 글로벌 영어캠프(Global English Camp)

먼저 단기과정 프로그램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며 방학 중에 시행된다. 글로벌 영어캠프는 7월과 1월에 시행되며 4주 동안 진행된다. 재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2학점이 인정된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실력 때문에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꺼리지만 글로벌 영어캠프는 기초적인 문법이나 회화 정도만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다. 또, 선발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어캠프를 통해 영어를 열심히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선발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4주 동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끝난 후나 주말을 이용해 현지 학생들과 간단한 여행도 할 수 있다.

◆ 1+1 프로그램

영어를 배우면서 전공도 같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1프로그램은 두 학기(어학학기+전공학기) 동안 진행된다. 1학기에는 대학 부설 어학코스를 수강하고 상대교의 입학자격(TOFLE)을 취득하고, 2학기에는 대학학부 강의를 수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선발 심사 시에 필기시험을 통해 전공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1+1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로 학과 강의를 들으면서 관련 지식을 쌓게 된다면 앞으로의 취업에서도 단순 국내기업이나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이나 회사에도 지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교환학생(Exchange) 프로그램

두 학기 학부과정 프로그램이다. 본교의 수업료는 정상 납부하지만 상대교의 수업료는 전액 면제된다.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인원은 대학별로 연간 2명에서 4명 사이이다. 미국의 Northern Kentucky 대학과 University of Evansville 대학, 뉴질랜드의 Unitec Institute of Tech 대학은 IBT 80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 방문학생(Study Abroad) 프로그램

두 학기 학부과정 프로그램이다. 교환학생 프로그램과는 반대로 상대교의 수업료는 전액 납부하지만 본교 수업료는 전액 면제된다. 방문학생으로 파견되는 인원은 대학별 학기당 3명에서 5명 사이이다. 미국의 Montclair State 대학과 캐나다의 Medicine Hat College 대학은 IBT 80이상, 미국의 Northen Kentucky 대학과 University of Evansville 대학은 IBT 61이상이어야 한다.

◆ Global English Semester Program

한 학기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교양 15학점이 인정되며 학기당 20명 내외로 선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재학생의 영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자기가 어느 정도 영어실력이 있고 그것을 더욱 향상시키고 싶다면 지원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Disney College Program

세계적으로 유명한 Walt Disney World으로 파견되는 프로그램이다.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매월 150만 원 정도의 인턴십 급여를 받는다. 또한 12학점이 인정되는데 전공인정이 가능하며 학기당 15명 이내로 선발한다.

◆ 대만 카이난 대학 여름학교

7월 초순부터 3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선발 인원은 5명에서 10명 정도이다. 또한 영어는 물론이고 요즘 한창 중요시 되어지는 중국어도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외국의 새로운 문화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 한성국제여름학교(International Summer School) 프로그램

3~4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6월 하순부터 시작된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선발 인원은 5명에서 10명 정도이다. 한국학으로는 Korean Economy, Politics Comtume, Religion 등이 있고 문화체험으로는 DMZ체험, 이천 도자기체험, 경주, 안동, 난타, 야구장, 비보이, 남산 태권도, 한복체험, 한강 유람선 등이 있다. 그러나 한성국제여름학교의 경우 1~2학년보다는 주로 3~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과 같이 지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실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글로벌 영어캠프와 Disney College Program이다. 글로벌 영어캠프의 경우 영어실력을 크게 요구하지 않고 방학 중에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Disney College Program의 경우는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전공이 인정되고 영어공부를 하면서 돈도 같이 벌수 있고 기회가 된다면 취직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 어학연수보다 값이 저렴하고 몇몇 프로그램들은 학점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씩 도전을 해보는 것도 대학 생활 중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 다양한 분야의 생산적인 사람을 원한다. 그리고 지금도 영어가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영어의 중요성을 더욱 커질 것이다. 국제교류프로그램은 이러한 변화와 추세에 맞춰 학생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심도 깊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자기가 영어실력을 어느 정도 늘리고 3~4학년 때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2학년 때 참여를 해서 미리 더 많은 경험과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도움을 주신 분 : 지식정보학부 졸업생 대외협력팀 김일환 과장님

대학도서관 사서, 이종윤 선배님과의 만남

11 남궁은 11 안미현

Q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졸업한 04학번 이종윤이라고 합니다.

Q :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A : 저는 지난 4월부터 서경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 대학도서관 사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 대학도서관 합격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경력직에 오라클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서관 뿐만 아니라 기업에 근무 하셨던 분도 있다고 합니다. 또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언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상당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사서가 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 복수전공이나 교직을 하셨나요?

A : 저는 따로 복수전공이나 교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관리 부전공만 했습니다.

Q : 주로 대학도서관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다른 도서관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 도서관 용어나 프로세스는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대학 도서관의 사서가 되어서 실제 근무를 시작하면 그 외에 시스템이나 각 도서관만의 특성, 장비 및 시설 등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분류나 정리 작업만 하면 좋겠지만 매일 아침 통계를 내는 것부터 도서관 마감까지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도서관은 다른 학교 도서관과는 달리 업무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두개의 층에 각각 인문·예술자료실, 사회·과학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들은 수서 된 후, 각 층에 모든 작업을 하고 다른 종류의 책은 해당 층에 맞게 보내게 됩니다.

Q : 원래부터 사서직을 희망하셨나요?

A : 저는 아버지의 직업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보고 자랐습니다. 나무서가에 폐가식 서고였던 것이 점점 현대식으로 변화하여 도서관은 마치 사람처럼 쑥쑥 자라나 이젠 디지털 시대에 발 맞춰 나가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저에게는 도서관이 편했고, 대학에서 배운 학문을 꼭 한번은 써 보고 싶어서 사서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Q : 대학도서관 사서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은 각각 무엇인가요?

A :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좋은 점과 힘든 점은 서로 같습니다. 사람에 울고 사람에 웃는다는 것입니다. 이용자분들이 원하는 일을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기뻐하실 때 사서도 같이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때 힘들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모든 직장들이 비슷하겠지만 보수적인 집단일수록 그 정도가 심하겠죠.

Q : 대학도서관의 사서로서 자부심(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A :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사서로서의 즐거움이 큽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도 도서관의 한정된 자료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양질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용방법이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레포트나 과제 작성 시, 도서관은 참고 문헌의 창고입니다. 적은 시간으로 남보다 뛰어난 결과물을 내고 좀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방법들을 알려주어서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기뻐 할 때 즐겁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Q : 다른 대학도서관과 차별화 된 장점 같은 것이 있나요?

A : 제가 근무하는 대학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 차별화 된 점은 연간물도 각 권 처리해서 서가에 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료를 쉽게 볼 수 있고 한 분야의 이슈들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A : 도서관 이용자분들께서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은 혼자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임을 항상 떠올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행동들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Q : 대학도서관 사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다른 사서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 사서,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서를 하면 삶의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들을 누구보다 빨리 접하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적인 사람들에겐 약간 힘든 직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데이터를 입력하고 검사하는 날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서라는 직업에서의 업무는 더 배운 사람이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더욱 많이 갖는 사람들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서가 되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과 이용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이옥주 선배님과의 만남

11 이은호 11 임호영 11 정호빈

Q :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선배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A : 저는 01학번 이름은 이옥주이고 학교에서 일한지는 지금까지 6년이 되었네요. 정식사서로 근무한 것은 2007년부터이고 그전에는 일반사회 수업도 같이 병행했어요. 처음에는 사서공무원을 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면서 행정학과 복수전공과 교직이수를 했습니다.

Q : 요즘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들을 많이 따는데요, 그중에서 도서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한자나 컴퓨터 자격증을 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음.....제 생각에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컴퓨터나 한자자격증 보다는 교직이수를 통해 사서과목외의 다른 자격증을 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학교도서관에서도 사서과목 하나보다는 그 외의 다른 과목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더 선호하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교직이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Q : 지금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사립과 국립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학교에서의 사서교사의 대우나 복지 같은 것은 어떤지? 그리고 퇴근 후에는 주로 뭘 하시는지?

A : 첫 번째로 사립과 국립의 차이를 말하면 국립의 경우는 들어갈 때 임용고시를 보는데 사립의 경우는 임용고시를 보지 않죠. 대신에 학교자체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자체시험 등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월급이나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반 선생님들과 똑같아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예전에는 춤 같은걸 배우기도 했고 요즘은 어학 공부를 많이 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우리나라 도서관의 경우 동양서적들이 많다보니 잘 모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학교 다니면서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워두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Q :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해 따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A :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도서관이용교육을 해요 예를 들어 학교도서관소개나 운영시간 KDC 책 찾는 방법 등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서관을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위해 가는 곳으로만 생각을 해서 책을 찾는 방법 같은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도서관이 공부를 하러 가는 곳 뿐 만 아니라 책을 빌리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Q : 사서교사의 주요업무나 업무량을 어떻게 되나요?

A : 여기서는 수서, 운영, 계획 등 모든 업무를 혼자 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는 어떨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1명이 혼자 하고 있어요. 업무량은 7시30분에 출근을 해서 3시30분에 퇴근을 하는데 가끔 도서관에서 행사가 있다 보면 좀 늦게 퇴근할 때도 있어요. 학교에서 도서관 공간이 큰 편이다보니 도서관에서 행사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Q : 도서관업무를 혼자 보시려면 많이 힘들지 않나요?

A : 학교에 도서부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도서부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책 정리, 청소, 대출이나 반납,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도 도와주고 다른 학생들의 책 찾기 같은 것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Q : 도서관을 주로 이용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이용하나요?

A : 대부분이 1학년이에요. 학기 초에 도서관이용교육을 받다보니 많이 오게 되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능공부 때문에 이용을 잘 못하게 되죠.

Q : 사서교사는 정기적으로 채용하나요?

A : 정기적으로 채용하지는 않고 타 교과의 수급인원에 맞춰서 자리가 났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이나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지를 해줘요. 또 사서e마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정기적으로 뽑는 게 아니다보니 수시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1년 전에 올린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Q : 사서교사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2006~2007년에는 자리가 꽤 있었지만 2008~2009년에 들어서 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도 계속 줄고 있고요. 대부분 정권교체시기에 많이 뽑고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전 정권에서는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그럭저럭 뽑았었는데 현 정권에서는 도서관보다는 경제적인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어서 많이 뽑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 수만 봐도 6.5%정도 밖에 안 되고요.

Q :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서가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요. 초등학교 도서관 같은 곳은 학생들이 어리다 보니 학부모님들이 와서 도서관 일을 도와주시곤 하는데 가끔가다 사서교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서가 단순히 대출·반납이나 책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V. 2011년 지정의 모습

➔ LT

➔ 이우범 교수님 퇴임식

➔ 낙산체전

➔ 제 29대 회장단 선거

지식과 정보가 자유로운 세상, 국회도서관

11 박대현 11 임호영

국회도서관 외관

구분	국립도서관
설립일	1952년 2월 20일
설립목적	국회의 활동과 일반국민의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제공
주요활동 / 업무	입법 활동 지원, 조사활동, 자료수집 및 열람제공, 전자도서관 사업, 국가서지작성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번지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8,506평, 장서 수 약 325만권(2010.10)

◆ 연혁

1952년 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도서실로 발족한 것을 시작으로 생긴 국회도서관은 1955년 국회도서관으로 승격된 이래, 1963년 국회도서관법의 제정과 함께 국회의 독립기관으로 발족되었다. 이후 이듬해인 1964년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내출판물의 납본을 개시하였고, 1975년 현재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전하였다. 본래 의원들과 정부 관리들에게나 이용이 허가되던 국회도서관은 1998년 20세 이상의 성인에 한하여 한정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또 2002년부터 일요일 개관을 시작하고, 2009년부터 야간개관을 하는 등 점차 그 이용성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 위치와 이용안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번지 국회의사당내에 위치한 국회도서관은 그 이름에 걸맞게 전·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들이 이용을 한다. 또한 대학생이나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다. 대학생이 아닌 초, 중, 고생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국회도서관에서 의거한 자에게 추천장을 받아야만 이용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도서관 소장 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도서관장이 인정한 자,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열람증을 등록한 뒤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 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우선, 관내 출입을 위한 열람증을 발급 받아야한다. 국회도서관에 처음 방문하는 경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등록을 한 뒤 안내데스크에서 신분확인과정을 거친 뒤 열람증을 교부 받을 수 있고 교부받은 열람증을 이용해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에 한번이라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증 무인 발급기를 통해 일일 열람증을 발급받은 뒤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매번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정기 열람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장기 열람증은 이용자등록 및 방문확인과정을 거친 뒤 안내실에서 사진을 등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진과 발급비용 3,000원이 필요하다.

국회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관외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소장 자료를 관내에서 열람하는 것만 허용된다. 자료실 내의 자료들은 별다른 신청 없이 바로 직접 열람 가능하고, 자료실에 없는 자료들은 자료검색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한 뒤 1층 로비 대출대에서 받아 열람 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 오전 9시~오후 10시(야간이용시간 : 오후 6시~오후 10시), 주말 – 오전 9시~오후 5시이고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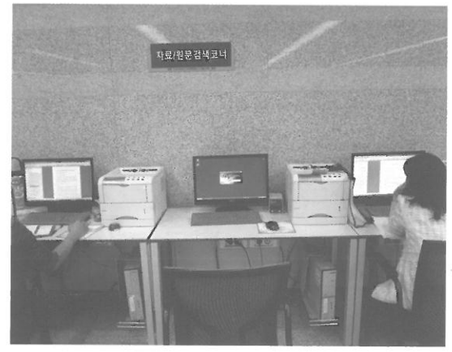
◆ 자료의 수집

자료수집 방법은 국내의 것은 주로 납본에 의존하고, 미납본 자료는 구입을 하며, 해외자료는 일본 및 미국에 있는 해외주재관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 또, 공산권 국가를 포함한 세계의 도서관 및 연구기관과 국제교환협정을 체결하여 자료를 교환, 수수하고 있다.

◆ 층별 소개

B1F : 강당, 소회의실, 매점, 식당
1F : 대출대 및 정보검색대, 석박사학위논문실, 어린이방, 복사실, 안내실
2F : 최신자료실, 독도·통일자료실, 마이크로폼자료실
- 의정관3F : 디지털입법자료센터
3F : 일반서고 (이외 장소 이용 불가)
4F : (이용 불가) 국회입법조사처
5F : 의원열람실, 정간열람실

1층 로비



1층 자료 / 원문검색 코너

국회도서관은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총 6층짜리 건물이다. 그리고 2층에서 다른 건물인 의정관 3층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놓여 있다.

실제로 도서나 자료가 비치되어 방문자가 이용 가능한 곳은 1층, 2층의 서고들과 3층의 일반서고, 의정관의 자료센터, 5층의 정간열람실이 전부이다. 3층의 대부분과 4층은 행정기관으로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다.

이용 가능한 곳으로 층별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층에는 정보검색이 가능한 컴퓨터들과 자율로 이용 가능한 책상이 비치되어 있는 로비를 중심으로, 몇 개의 자료실이 있다. 대출대에 책을 신청하면 30분 내로 대출대에 책이 배달되어 1층에서 편리하게 책을 받을 수 있다.

2층은 로비의 대계단을 통해 올라가며 1층 천정이 뚫려 있기 때문에 2층 중앙도 뚫려 있다. 최신 자료실은 말 그대로 최근 발간된 책이 동양서와 서양서로 나뉘어 비치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가장 일반적인 도서관의 형태를 띤 서고이다. 독도 · 통일 자료실에서는 지도를 열람할 수 있고, 이곳에는 역사와 관련된 책, 독도 관련 서적과 통일에 관련된 서적, 북한 교과서와 문학이 비치되어 있다. 마이크로 폼 자료실에는 신문, 의회자료, 산화도서와 같은 마이크로 폼 자료를 리더프린터나 리더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작은 편이다.

디지털 입법 자료센터

정간 열람실

2층 한쪽에 있는 다리는 의정관 건물 3층과 이어져 있다. 이곳에는 디지털 입법 자료센터가 반원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무실과 같이 PC가 비치된 자리가 자료실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국회도서관 입장 시 받는 열람증을 인증하고 컴퓨터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열람실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자료를 제외하면, 이곳에서 거의 모든 자료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3층은 중앙의 정원을 끼고 관계자만 출입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일반서고에는 따로 자료실에 비치될 만큼 많은 양이 아닌 자료들이 주제별, 가나다순 등으로 배열되어 있다. 4층 역시 행정시설로만 이루어져 있어 일반인이 이용할 수는 없다.

5층의 의원 열람실은 의원 전용실로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곳은 정간 열람실이다. 국내외의 학술지, 잡지와 같은 정기 간행물, 대학 간행물, 논문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대학 자료는 연도에 상관없이 대학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도서관의 이용 가능한 모든 열람실에서 복사는 허용되지만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복사만 가능하다. 복사 요금은 장당 40원이다.

한성대 주변의 명소를 찾아라!

11 임호영 11 장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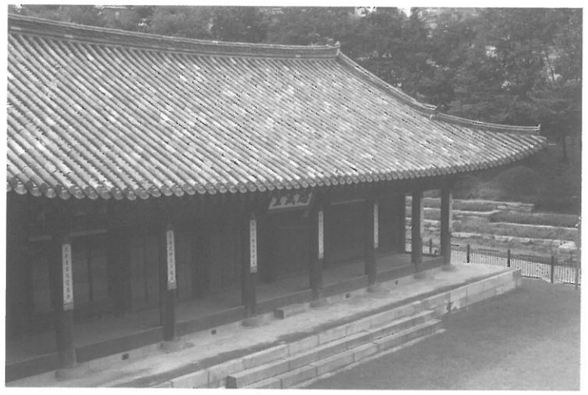
총무관

삼군부 총무당은 조선 말기의 군사기관이었던 삼군부의 중심 건물이다. 조선 중기 이후 힘이 비대해진 비변사를 제재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비변사를 의정부에 통합시켰다. 이때 조선 초에 정부와 군부를 분립한다는 정책 아래 만들어진 의흥삼군부(신영, 남영, 마병부)는 흥선대원군에 의해 합쳐지게 되었다.

삼군부의 기능은 군무를 통솔하고 숙위 문제를 총괄하는 동시에 변방에 관한 일체의 상항까지 관할하였다. 삼군부는 그 위세를 병인양요, 신미양요 때까지 떨쳤지만, 개항 이후인 고종 17년에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삼군부는 광화문 앞 서쪽인 지금의 정부종합청사 자리에, 의정부는 동쪽에 위치하여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폐지되었던 삼군부가 다시 세워질 때 원래 삼군부 자리에 있던 예조는 한성부자리로 옮겨졌다.

총무당은 청헌당, 덕의당과 함께 삼군부 내에 있던 건물이었다. 1930년대에 와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 되었다. 덕의당은 세월이 흐르면서 없어졌고, 청헌당은 1967년 정부종합청사가 건립될 때 공릉동 육군사관학교로 옮겨졌다.

총무당의 건물은 고종 5년 삼군부의 군사상의 책략을 총괄하는 청사로 지어졌다. 지금 위치로 이전 된 후 1942년 2월부터 경기도 공무원 연수장으로 사용되다가 서울시직업훈련원 사무실로도 사용되었으며, 건물이 퇴락하여 1979년 대대적으로 보수하여 옛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건물은 정면 7칸, 측면 4칸의 규모이며, 정면 중앙 3칸, 측면 2칸은 대청이고, 좌우에는 정면 1칸, 측면 2칸의 온돌방이 있고, 그 옆에 정면 1칸, 측면 2칸의 광이 있다. 전, 후면은 툇간으로 개방되었다. 공포는 무출목 이익공이고 모두 쇠서로 되어 있다. 공포 사이와 창방 위에는 화반과 운공을 설치하였다. 막새기와를 사용했으며, 용마루와 내림마루 끝에는 토수를 끼웠다. 세칸 대청 전면은 사분합문을 달고, 상부에 교창을 설치하였다. 후면에는 아래에 머름을 설치한 사분합창을 달았으며, 건물 양 측면과 온돌방 전후면 기둥 사이에도 머름이 있는 사분합창을 달았다. 중앙 어칸에는 신관호의 낙관이 찍힌 현판이 걸려있고, 정면 여덟 기둥에는 주련이 걸려있다.



총무관

이 건물에 대해서는 신관호가 쓴 <금당초엽>의 '삼군부총무당상량문'에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고종 5년에 옛 제도에 따라 건축되었다고 나와 있다. 고종 시대의 삼군부는 중앙에 총무당이, 그 좌우에 청헌당과 덕의당이 세워졌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총무당은 청헌당과 함께 조선시대 관아 건축의 배치와 건물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성대학교 옆에 바로 이런 귀중한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기에 한성대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동시에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낙산성곽

낙산 성곽은 서울 성곽의 일부분으로서 태조 4년(1395) 경복궁, 종묘 사직단의 건립이 완성되자 곧바로 정도전이 수립한 도성축조 계획에 따라 축조되었다.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을 잇는 총길이 18.2.km 중 125m를 차지하고 있다. 평지는 토성, 산지는 산성으로 계획되었다. 또 세종 때는 성곽을 전면 석성으로 수축하는 보수 확장 사업을 벌였다. 현재 서울성곽은 동대문과 서대문 부근의 성곽 일부가 헐려 나갔고, 이듬해에는 용산과 종로 사이의 남대문 부근을 철거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평지 성곽은 대부분 헐려있고 산지 산성인 낙산 성곽을 포함한 10.5km만 남게 되었다. 현재 서울시는 낙산 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옛 모습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낙산성곽

낙산공원은 낙산 성곽 정면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경관을 제공하고, 자연 탐방을 통해 역사와 문화 교육의 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총 면적은 6만 1145평으로, 1999년 12월 30일에 착공하여 2002년 7월에 완공 하였다. 주요 시설은 전시 및 관리실, 매점 및 화장실, 비우당, 육각 정자, 노인정 등을 비롯하여 12개의 배드민턴장과 1개의 농구장 등이 있다.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로 나와 길을 따라 혜화역 방면으로 약 150m를 걷다보면 조선시대 성곽을 쌓을 때 도성의 북동방에 설치된 문인 '혜화문'을 만날 수 있다. 본래 이름은 '홍화문'이었지만, 1483년(성종 4) 새로 창건한 창경궁의 동문을 홍화(弘化)라 정함에 따라 혼동을 피하기 위해 1511년(중종 6) 그 명칭이 혜화(惠化)로 변경 되었다.

혜화문

혜화문은 당시 북대문인 '숙정문'이 일반인들에게 통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양주·포천 방면으로 통하는 중요한 출입구 역할을 한 문이었다.

이런 혜화문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한말까지 잘 보존되어 오다가, 1928년 문루가 퇴락하여 이를 헐어버리고 홍예(虹霓)만 남겨 졌는데, 일제는 혜화동과 돈암동 사이의 전찻길을 내면서 이마저 헐어버려 그 형태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의 혜화문은 도로로 인해 그 자리도 본래의 자리와 다르며, 그 형태 또한 대강 엇비슷하게 만들어졌을 뿐이다. 또 현판의 글씨 쓰는 방향도 잘못 되어있다. 한때 한성의 북동쪽을 지켜온 혜화문이 겨우 이렇게 복원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혜화문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한 안타까운 서울의 문화재들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심우장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로 나와 곧장 1600m를 걷다보면(걸어가기엔 다소 멀기 때문에,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로 나와 3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려 도보를 이용하든지, 1111번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길가에 '심우장 가는 길'이라고 쓰여 있는 조그마한 푯말을 볼 수 있다. 푯말이 있는 좁은 골목을 따라 조금 올라가다 보면 尋牛莊(심우장)이라고 쓰여 있는 패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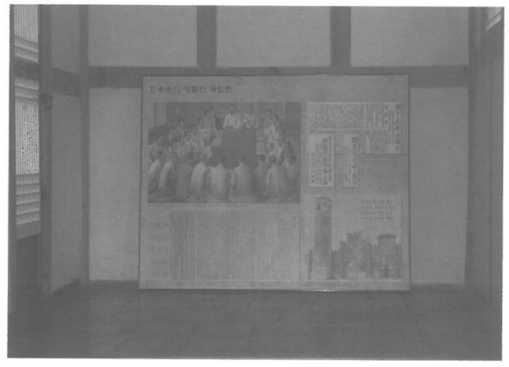
심우장은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 한국의 시인, 불교 승려, 작가이자 독립 운동가였던, 우리에게는『님의 침묵』의 지은이로 더 유명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로 한용운선생은 1933년부터 타계하신 1944년까지 이곳에 기거하셨다.

심우장

이 건물은 한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북향집인데, 독립 운동가였던 그가 남향으로 터를 잡으면 조선총독부와 마주보게 되므로 이를 거부하고 반대편 산비탈의 북향터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중 한명이었던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굳은 정신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그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본대사관 사저가 바로 심우장의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할 노릇이다.

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장방형 평면에 팔각지붕을 올린 민도리 소로수장집인 심우장은 한용운의 글씨, 연구논문집, 옥중공판기록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다. 그 뜻을 깊게 사 현재 심우장은 시·도기념물로 서울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해 앞서 투쟁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의 깊은 얼이 담겨있는 심우장에서, 선생의 깊은 뜻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심우장 내부

심우장 내부

리비아 사태 2편, 리비아의 오늘과 내일

11 박대현

독재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발생한 리비아 민주화 운동은 독재자의 무력적인 대응으로 인해 타국의 군대까지 개입하게 만들며 급기야 전쟁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산유국으로서 경제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던 리비아가 흔들리게 되면서, 세계는 리비아 사태로 시끄러워졌다. 이렇듯 2011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가로지르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리비아 사태는 최근 놀랄만한 소식과 함께 막을 내리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상반기에 이은 하반기 리비아 사태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상반기 간단정리]

1.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는 40여 년 동안의 독재 기간 동안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민심을 잃음.
2. 이웃 아랍국들의 민주화 혁명 성공에 힘입어 리비아도 민주화 운동 발발(하지만 부족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나중에는 정권 다툼의 성격이 강해짐)
3. 시민들의 하야 요구에도 카다피는 불복, 무력 진입에 들어가면서 내전 시작.
4. 내전에서 정부군이 우세하자 시민군은 서방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
5. 서방 국가들이 그 요청을 수락. 프랑스를 필두로 다국적군의 리비아 내전 개입. 이후 시민군 우세.
6. 하지만 정부군의 대책 마련으로 내전은 장기전으로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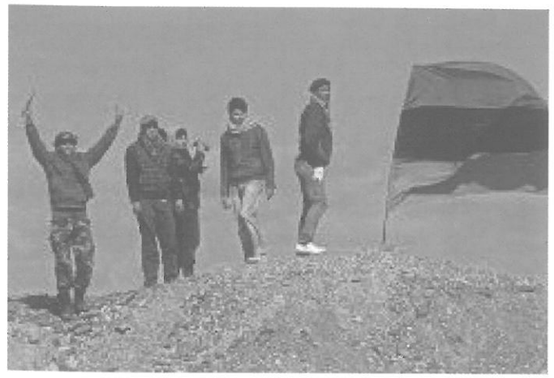
이상은 상반기 5월까지의 내용이다.

장기전 돌입이라고는 하였으나, 한 나라의 반쪽 정부군만으로는 반군과 다른 여러 나라의 공습을 막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카다피는 근처의 다른 아랍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도 세계의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적군의 개입 소식 이후로는 전쟁이 주가 되어 다른 소식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결국 8월 23일,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가 함락되었다. 시민군은 트리폴리 시내를 통제하고 카다피 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카다피 관저 '바브 알아지지아' 를 점령하게 된다. 이로서 카다피와 정부군은 군사력과 정치력을 모두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카다피는 이후 종적을 감추었으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고향인 시르테에 피신해 있다는 것이 발각되어 결국 반군의 난입에 의해 사살되었다. 10월 20일의 일이었다. 차마 이지면상으로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던 그의 사망 장면이나 시신이 찍힌 사진, 영상은 아무런 여과 없이 전 세계에 퍼졌다.

이로서 종장에 접어든 리비아 사태는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전 세계는 대부분 카다피의 사망을 리비아의 자유와 연관시켜 잘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독재자였으나 한편으로 나라의 길잡이였던 카다피의 사망으로 리비아가 갈 곳을 못 잡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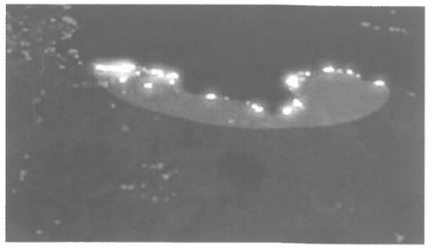
세상의 이목이 어떻든 간에, 이제 더 이상 리비아에 카다피의 독재는 없다. 이제는 그들이 바라던 민주 독립 국가를 제대로 건립하고, 40년 이상의 독재가 남겨놓은 잔재를 지우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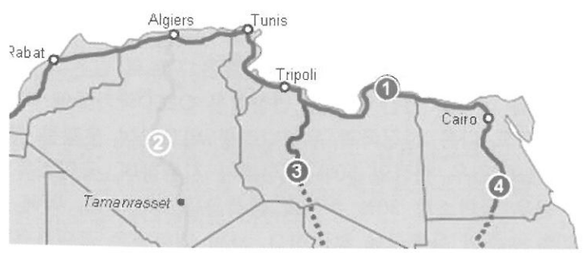


[TIP! 리비아 사태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1. 국제 유가 상승 – 산유국으로서 석유시장에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리비아가 내전으로 혼란스러워지면서,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2. 현지 업체 피해 – 리비아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건설업체 24곳을 포함하여 총 37개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직원은 현지인을 포함하여 1600명에 달한다. 내전으로 인해 이러한 건설업체에 군사들이 침입하여 기물을 빼앗아 가는 등의 피해가 있다고 한다.
3. 북한에 미칠 영향 – 다른 아랍국에 이어 리비아의 독재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이 기류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 다만 거리상의 이유도 있고 북한의 정보통제가 강화되었다고 한다는 점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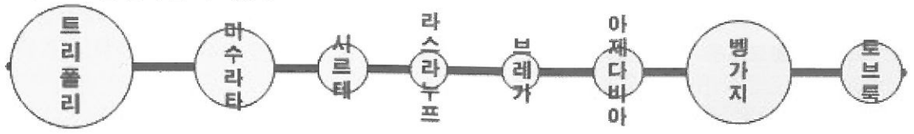
[TIP! 2 리비아의 환경과 내전의 관계]





세계지도에서 리비아는 사각의 형태를 띤 비교적 넓은 나라로 보이지만, 사하라 사막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토의 99%정도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실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해안선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곳뿐이다. 내전 초기에 시민군은 리비아 영토의 90%를 점령하였다고 보고했었다. 시민군이 굉장히 유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중 대부분이 사막인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인구가 집중된 트리폴리가 거점이었던 카다피 군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

전쟁 루트에 관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리비아는 해안선의 도시들을 잇는 하나의 도로가 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다(리비아에는 철도가 없다). 그러므로 리비아 내전은 벵가지와 트리폴리를 거점으로 서로가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고 있는 모양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논란의 시작과 앞으로의 노력

11 장병근

최근 반값등록금에 관하여 각 언론과 단체, 정당 등에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각각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리고 사상, 도덕, 철학 등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반값등록금논란의 시작은 사실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하여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꾸준히 높아져 왔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80%를 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대학의 수와 등록금 액수는 같이 증가했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은 1978년부터 매년 29%씩 증가했던 사립대 등록금을 국립대 수준으로 조정하려 했으나 무산되었다. 그리고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완전자율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노태우 정부이후 등록금 인상률은 십 단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2006년, 여당은 대선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을 내걸었다. 그러나 대선이후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무상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반값등록금을 제시하였다. 여당에서도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가 등록금 인하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하면서 논란은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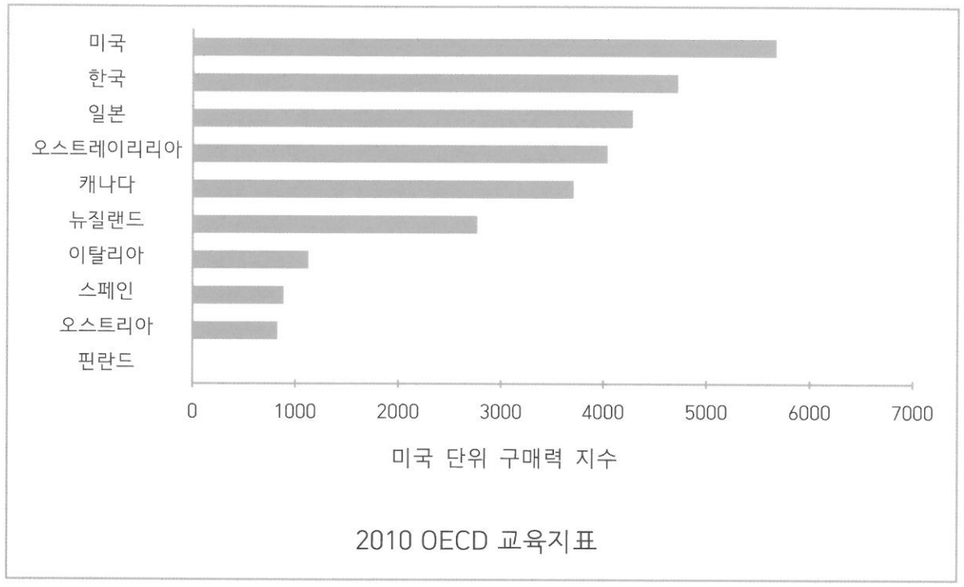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 사립 대학교 등록금 평균은 연간 768만 6000원으로 세계에서 2위수준이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립대인상률(%)	6.7	4.9	7.4	7.4	9.4	7.3	10.0	8.6	8.6	0.6	4.6	0.4
사립대인상률(%)	9.6	5.9	6.9	6.7	5.9	5.1	6.7	6.7	6.7	0.5	1.6	2.3

2000년부터 2011년 까지 누적 인상률은 77%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40.3%를 크게 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국립, 사립 대학교 연간 등록금 인상률은 OECD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다른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에서 주립대학생의 경우 재정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국민소득의 약 10%정도 수준의 등록금을 부담한다. 사립대학생의 경우 국민소득 50% 수준의 등록금을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국립대학생의 경우 국민소득 약 20% 수준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사립 대학생은 국민소득의 약 33%를 부담한다.

유럽의 대학들 중에서 2007년부터 500유로씩 받아오던 독일대학들도 점차 등록금을 폐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26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등록금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보다 많은 등록금을 받지만 발달된 장학금제도와 학생복지제도로 그 부담이 줄어들게 하였으며, 교육의 질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0 OECD 교육지표

이러한 우리나라 대학의 상황에서 등록금 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여러 시민단체들은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앞으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대학등록금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최초 소득분위 하위 계층에 한하여 50%로 인하하려고 하였으나, 여론에 밀려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2년 1학기부터 등록금을 반값으로 시행하자고 주장하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5조 7천억 원 가까이 자금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주장에 여당에서는 재정파탄과 막대한 세금폭탄을 국민들에게 안겨준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에서는 매년 10% 씩 등록금을 낮춰 5년 뒤에 등록금을 350만 원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또 학자금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제한요건과 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하였다.

대교협에서는 등록금은 대학들의 자율에 맡겨야하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적립금을 적극적 활용하여 장학금을 확대하고,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 노력하며, 대학의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자고 말하였다.

등록금 인하는 못 사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잘 사는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한 대학 총장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게 된 대학들은 한발 물러서 정부의 지원이 보장된다면 10~15%정도는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대학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펼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과 장학금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학들은 10조에 달하는 적립금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반값등록금 관련된 집회가 시작된 것은 11년 5월경부터이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산발적인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 집회를 시작한 대학생들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했고 이 중 70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 되었다. 이후 연행문제로 광화문 근처에서 기습시위가 이루어졌다. 6월 이후 시위의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시민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연예인들이 사회를 보거나, 1인 시위를 하고,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또 여러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 한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등과 같은 청년단체들과 다른 시민단체, 야권 정당과 단체들도 함께 하였으며, 일부 대학교수들도 집회에 참여하였다. 6월 중에도 4일과 10일에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2만 명, 경찰 측 5천명으로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현재의 과도한 등록금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20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감사원은 불필요한 지출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등록금을 30% 정도 감축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국, 공립대학생의 15%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신입생에 대한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학생 수를 조절하고, 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한다. 또 등록금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군복무시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자금대출로 인해서 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아서 비판을 받았다.

정부와 여당은 서로 대립하고 있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위한 당장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구적인 노력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 것이라며 지원을 늘리려고 하였으나,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여건과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43곳을 발표하였다. 이곳들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012년 정부는 1조 5천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7천500억 원 규모의 등록금을 낮추었다. 이때 동결이나 인하 한 대학에 한하여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1인당 38만 원 정도의 인하 폭이라며 장기적인 등록금 인하계획과 명확한 예산 확보,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는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비판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값등록금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있다.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의 문제를 사회문제화 한다는 것과 이를 국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비판이다. 4~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이러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또 경제 단체는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현재 정부지원이 늘어나면 세금부담이 늘고 대졸자가 늘어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였다. 고소득자나 부유층 자녀들을 볼 때 등록금 마련 문제는 개인의 능력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학자금에 대한 국고 지원의 방향은 공부할 의지가 있지만 생활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녀가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나, 자녀가 아예 없는 가정의 경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다른 복지예산을 끌어다 쓸 경우 전체적인 복지예산 증가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되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발표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6%는 무조건 찬성, 36.1%는 조건부 찬성, 반대는 5.7%, 잘 모르겠다는 4.7%였다. 또 응답자의 92.3%는 너무 비싸다고 답했다.

물가인상률 대비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54.2%가 당분간 동결해야한다고 했다. 대학 입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63.1%가 폐지이고 23.2%는 대폭 축소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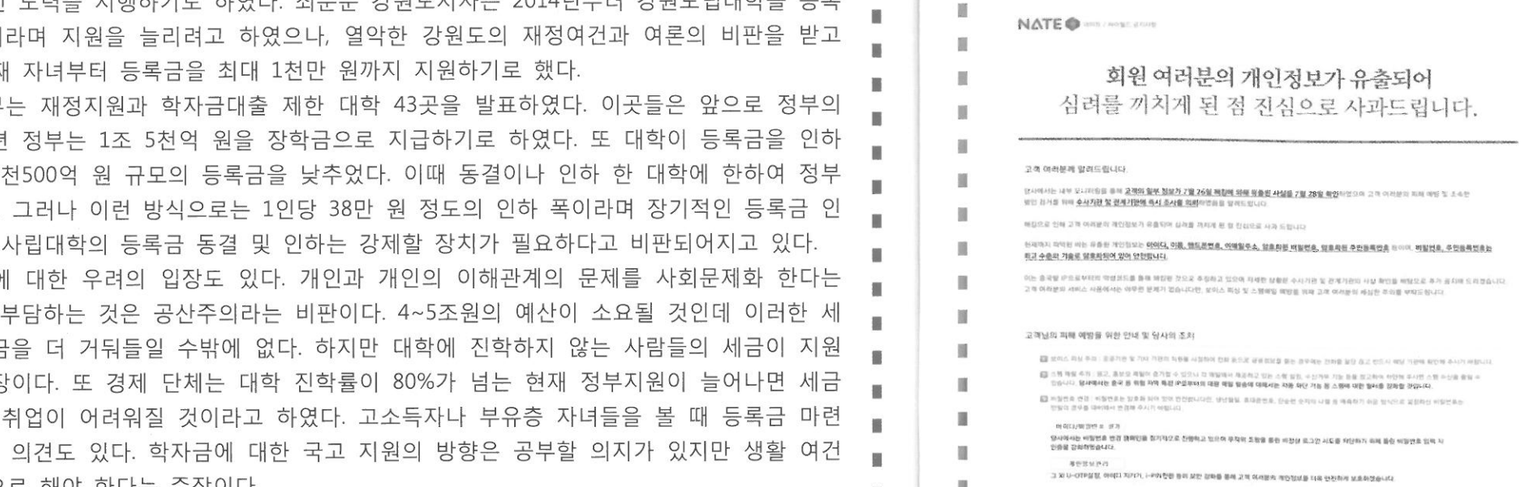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인식 할 만큼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세계최고수준이며, 정부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도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2~3개의 아르바이트를 학업과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개인정보유출, 그 실태와 해결방법은?

11 박준수

지난 7월 26일에 외부해킹으로 인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 이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약3천500만 명의 개인정보(아이디, 이름, 생일, 이메일, 성별, 혈액형, 주소, 연락처, 암호화된 주민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밝혀졌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서 해킹이 일어났고 이틀 후에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들과 동일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당부했지만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비밀번호를 한번이라도 바꾼 네이버 이용자는 전체 가입자 3880만 명 중 489만3771명으로 13%에 그쳤으며 특히 지난 7월 26일 발생한 네이트 해킹 이후에도 비밀번호를 바꾼 네이버 이용자는 231만 명으로 5.5%에 불과했고 다음은 417만 명(11%)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네이트는 1866만 명으로 53.6%였다.


NATE

회원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당사의 조치

해킹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탈퇴한 사용자들도 안심할 것이 못되는 게 국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상 탈퇴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도 1년 동안 보관하기 때문에 사건 이전에 탈퇴한 사용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민간영역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정비를 이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킹 대비 미약]

첫째로 해킹에 대한 대비 미약으로 인해 지난 7월 3,500만 네티즌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혼란을 일으킨 싸이월드와 네이트온 해킹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1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컴즈가 지난해 공모자금 443억 원의 사용 계획서에 신고 된 40억 원의 보안자금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와 관련 SK컴즈는 "사업계획서 상 언급된 공모자금 443억 원은 엠파스가 2003년 당시 조성해 2007년 우리와 합병되기 전까지 모두 사용했으며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들어난 SK컴즈의 보안 인식 미비가 지난 해킹사태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둘째로 지난 7월 포털사이트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에 사용됐던 악성코드는 막을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트와 싸이월드 공격에 사용되었던 악성코드는 'V3' 등 5개 백신 프로그램이 감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네이트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소송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인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었고 이런 개인정보들이 관리소홀로 무더기로 유출돼 수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그 예로 네이트 뿐 아니라 옥션, GS칼텍스에 이어 신세계, 아이러브 스쿨,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등에서 적게는 수십 만 건에서 많게는 수천 만 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포털, 금융기관,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 72개 업종 350만개 사업업자와 비영리단체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갖게 되었다.

[해킹 후 포털사이트들의 대처방법]

<네이버>

네이버로 포털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NHN은 보안 인력규모는 물론 보안 체계 역시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NHN은 기술지원 및 관리를 위한 보안인력만 100명 이상 보유하고 있고, 최고보안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포털업계에서는 가장 많은 보안인력들이 포진해있다. 그리고 NHN의 보안인력들은 자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안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자회사를 통해 직접 보안관제 등을 전담하는 등 높은 보안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NHN은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업계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안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식이나 서식을 마스킹 및 암호화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마스킹시스템(PDMS)을 구축해 보안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NHN의 관계자는 "포털에게 가장 중요한 보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유지"라고 하면서 "NHN은 꾸준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ISO/IEC 27001 국제 표준인증 획득은 물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인증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술적, 제도적인 보호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다음의 보안 전담인력은 약 50여명 수준으로 정보보호 위원회를 최상위기구로 기업 정보 보호팀과 개인 정보 보호팀으로 나눠 보안인력을 꾸려가고 있다.

2007년에 구성한 정보보호자문단은 각 영역별 전문가로 위촉된 자문단이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보보호자문단은 법조계, 학계, 보안, 금융, 정책 분야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선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견을 반영중이다. 또한 안정적인 정보보호서비스 방향 제시와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 검토 등 다음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정보보호자문단을 통해 외부자 관점에서 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조언은 물론 정보보호와 관련 법규의 최신 동향 등을 논의해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향후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네이트>

SK컴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 CSO를 사장 직속으로 승격 사내 보안전담 기구로 강화했다. SK컴즈의 사내 보안 전문인력은 기존 30명 수준에서 50명 수준으로 보강한 상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SK컴즈의 보안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컴즈는 사내 인력 및 업계 전문가 충원을 통해 보안 자생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통합보안센터(SOC) 구축운영을 통해 고객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접근 통제와 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장소와 시설에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고객DB 보호도 강화했다.

편집후기

// 안미현

2학기 때는 //학번 9명끼리만 그림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끼리 그림비를 완성시킬 수 있을까 라는 부담감이 정말 컸었다.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들끼리만 그림비 제작을 했더라면 아마 제시간에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특히 군대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전학나 편지로 그림비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신 항주하 선배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리고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바쁘실 텐데도 시간을 쪼개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서은경 교수님, 졸업하신 이종윤 선배님과 이옥주 선배님, 대외협력팀에 계시는 김일환 과장님 그리고 지식정보학부 학생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번 그림비의 여는 글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조인숙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또 뒤에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편집부 선배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학업과 그림비를 동시에 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준 편집부 아이들에게도 고생했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그림비를 만들면서 아쉬웠던 점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계획되었던 기사들도 취소되고 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었는데 시간적 압박 때문에 편집부 아이들이 모든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내년에는 /2학번들과 함께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좋은 기사, 좋은 그림비를 만들 것이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그림비이지만 제작에 참여한 모든 편집부원들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고 소중한 그림비가 되지 않을까 싶다.

// 정호빈

신입생으로 들어와 처음 편집부 일을 하면서 그림비를 만들었던 게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같은데 벌써 2번째 그림비를 낸다고 생각하니 뭔가 새롭네요. 거기다 처음 그림비에서는 /0학번 선배들이 도와줬지만 이제는 다들 군대를…ㅠㅠ 가버려서 //학번들끼리만 만들다 보니 뭔가 더 새롭고 한편으로는 많이 부족할 거 같은 그림비 때문에 떨리기도 하네요….

처음 그림비에서는 일반 기사만 쓰다가 이번 그림비를 만들면서는 처음 써보는 인터뷰 위주 기사를 쓰다 보니 많이 부족한 것도 느끼고요. 그래도 이런 부족한 인터뷰에 친절하게 답해주셨던 대외협력팀의 김일환 과장님과 한성여고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옥주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님들과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연결시켜준 선배님들께 감사하고 계속 말 안 듣는 편집부 차장 때문에 힘들었을 안미현 부장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기사 쓰느라 힘들었을 편집부 부원들 혜선, 은호, 대현, 호영, 준수, 병근, 은이 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군대에 있으면서도 그림비 걱정에 계속 연락을 했던 전 편집부 부장과 차장인 항주하 선배와 강영철 선배에게도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 남궁은

처음 학교에 들어와서 편집부 활동을 시작하고 상반기 그림비 작업에 몰두했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두 번째 그림비를 내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하반기 그림비 작업에 참여하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이라도 막상 그 일을 맡게 되었을 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원들에게 피해만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단체 생활에 있어서 책임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올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부원들과 함께 편집부 활동을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 그림비 작업에 있어서는 이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선후배님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박대현

해가 갈수록 시간도 빨리 간다더니 올해도 작년보다 빨리 지나갔다. 한 달만 지나면 벌써 대학교 신입생 시절도 끝나는 것이다. 그림비 제작도 벌써 두 번째다. 전 학기에 한번 만들어보았으니 적응할 만도 한데 이번에도 깨나 허둥댔던 것 같다. 제작을 이끌어주던 선배님들 없이 동기생들만이 모여 만들게 돼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동기들끼리 제작했던 만큼 훨씬 편한 분위기에서 만들 수 있었다. 어쨌든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 지어져서 뿌듯하다.

정보를 얻는 사람 몰지않게 알리는 사람이 얻는 것도 많은 것 같다. 기사를 쓰면서 내가 더 배워간 것이 많다. 처음엔 관심도 없던 리비아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조사하게 되었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찌 들어갈까 망설이다 겨우 들어가서 웅장한 국회 건물에 감탄하기도 했다. 인터뷰 일로 여러 교수님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생겼다. 이런 경험들을 얻게 해 준 편집부에게 감사한다.

// 박준수

/학기에 편집부에 들어서 그림비를 내고 2학기가 되었다. 2학기에 들어서 기사를 쓰면서 이제는 좀 익숙함도 느껴지지만 아직까지 역시 글쓰기는 어렵다고 느꼈다. 하지만 글 쓰는 능력도 조금 늘어나는 것도 같고 내가 쓴 글을 사람들이 읽는다고 생각하면 재미있고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저번학기에는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소개를 쓰는 일을 했지만 이번에는 한때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네이트 해킹 관련기사와 인터뷰도 해보았다. 처음해보는 인터뷰와 너무 유명한 기사를 쓰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쓰고 난 다음의 보람이 기사를 쓸 수 있게 한 활력소가 아닌가 싶다.

이제 2학기도 막바지에 다다랐고 그림비가 나올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완성도가 높은 그림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이번 학기 뿐 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편집부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그림비를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를 내는 편집부가 되기를 바라며 편집부 화이팅!

// 안혜선

/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도 그림비를 만들게 되서 뿌듯해요. /학기때는 선배들이 기사 쓰는 법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다지 힘들지도 않고 부담도 덜했는데 2학기때는 /학년들끼리 그림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도 미현이가 많이 고생한 덕분에 서로 도와가면서 즐겁게 기사도 쓰고 인터뷰도 했어요. /년동안 저의 흔적이 남겨진 그림비가 2권이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뿌듯해요. 내년에 /2학번 후배들이 편집부에 많이 들어와서 더 좋은 그림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편집부 화이팅!

// 이은호

이번엔 과제도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바빠져서 많은 참여를 못한 것 같아 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하지만 부활동을 과제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부원들을 보면서 여러모로 느끼는 점도 많고 좀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우리가 공들여 만든 기사들이 그림비라는 것으로 완성되어 나오니 매우 뿌듯하다. 다음 학기엔 다른 부원들을 도와 더 열심히 해야겠다.

// 임호영

이번이 벌써 두 번째로 맞이하는 그림비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편집후기를 쓰고 있다. 매번 느끼지만 편집후기에 무슨 내용을 얼마나 써야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부터 든다. 사실 이번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2011년 2학기 그림비에서 내가 맡은 기사는 우리학교 주변 명소탐방, 국회도서관, 한성여고에서 근무 중이신 선배님인터뷰 세 개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본 뒤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번 그림비에선 충분히 발로 뛰고 직접 본 뒤 기사를 써서 더 뜻 깊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학교 주변 명소탐방기사에서는 심우장, 혜화문, 서울성곽, 총무관에 직접 갔고, 국회도서관기사에서는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도서관에 직접 갔다. 그림비기사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경험해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림비 기사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곳을 체험해보고 왔다는 것이 정말 뜻 깊게 느껴진다. 또 한성여고 교내 도서관을 찾아가 만난 사서선배님과의 인터뷰도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나는 사서와 이렇게 대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없었는데, 거기다 학교 선배님이라 그런지 여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이렇게 내게 편집부활동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인 것 같다. 앞으로도 편집부활동을 열심히 하며 다양한 체험을 해야지!

// 장병근

2학기에 처음 편집부에 들어와서 기사를 쓰면서 재미있고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처음 학교 주변에 있는 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들이 남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재미있고 신기하면서도 이런 명소들을 보면서 역사를 배우는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반값등록금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등록금에 대한 여러 문제들과 해결방안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시사에 대한 여러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학교 총학생회가 나서서 학생들의 힘을 모아 등록금 인상 금액을 환급받은 것은 굉장히 뜻 깊은 모습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새로운 배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남을 편집부

편집부장 : 11 안미현
편집차장 : 11 정호빈
편집부원 : 11 남궁은, 박대현, 박준수, 안혜선
이은호, 임호영, 장병근

발행일 : 2011년 11월 21일
발행처 : 지식정보학부 '길이남을 편집부'
발행인 : 11 안미현

지식정보학부
28대 학생회
길이 남을 편지부...

HANSUNG
UNIVERSITY